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설 명</h1> 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 서민금융진흥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1.4.23.(금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이 석 란(02-2100-2610)	담 당 자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614)		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김 진 휘(02-2128-8080)		박 장 구 부장 (02-2128-8085)		

제 목 : 햇살론카드는 보증재원 등을 감안하여 공급할 예정이며, 이용자는 연체후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..

[조선일보 4.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1. 기사내용

- ☐ 조선일보는 4.23일자 「저신용자 연체, 정부가 갚아줄게... ‘세금 먹는 카드 논란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신용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.”
 - “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쳐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전성을 높이게 된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

[햇살론 카드 취지]

- ☐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, 할부·포인트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.

- 이는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한 취지로,
 - 이를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금융상품인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입니다.
- 카드발급여부, 월한도 결정시에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개인의 상환의지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,
- ①신용관리교육 이수율 의무화(3시간 이상)하고, ②상환의지지수 (Credit Willingness)를 개발·적용할 것입니다.

[보증재원]

- 햇살론 카드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재원을 매칭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며,
- 100% 보증비율로 운영되나, 보증재원,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시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.
- 특히 햇살론카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*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, 카드사용자들도 이를 감안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
*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대위변제이후 서민금융진흥원이 구상채권을 관리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